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3월 10일 (제1244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시간을 요리하자

시간은 잡을 수 없다. 늦출 수도 없고,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오직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그 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상대로 싸울 때 그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시간을 잡으신 것이다. 또 열왕기하 20장 11절에 히스기야가 죽을병으로 인해 벽면하고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셨고, 그 증표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을 뒤로 돌리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적어도 우리는 시간을 요리할 수는 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과 질이 달라지듯,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란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맛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는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 빨리’란다. 그렇다면 빨리 빨리한다고 시간이 아껴질까? 아니다. 잠언 기자가 누누이 말했듯, 그것은 ‘조급’이기에 결국 실수와 어리석음을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맛있는 삶이 조리될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가장 절대적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버릴 것은 버리게 되어 삶이 정리되고, 정리된 만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둘째,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선택한 것에 집중하고 달려가야 한다. 선택은 갈림길에서 한길을 택한 것이고, 그 한 길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성공에 이른다.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못하고 안 할 사람이다. 누군가는 똑같은 재료로 맛난 인생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선택과 집중으로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자.

하나님을 알면 담대하고 부족함 없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주제로 2박 3일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 ‘2024 예수중심교단 목회자세미나’는 교단의 리더들에게 새해의 각오와 다짐,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영적 동력을 확보하는 시간이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네 타임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교단의 목회자들이 성장하고 진보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총회장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종들 각자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사명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벤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죽기까지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러기에 또 괴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태양이 저물며 마지막 황혼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빛을 발하듯,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작품을 위해 우리의 마지막 열정을 불살라야 한다.

목사님은 70대 중반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열정으로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고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다. 세상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간

국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중심교단의 오늘은 바로 그 과정을 대변하는 결과다. 제발 부탁이다. 사람을 두려워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나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또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그 어떠한 권력도, 악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어라.

올해 슬로건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2024 예수중심교단 목회자세미나(2월 26일~2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시는 목사님을 닮고 싶어 종의 길을 자원하거나 부르심에 응한 종들이 10년, 20년, 30년, 교단의 중추적인 자리에서, 각 지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며 헌신해온 그 믿음과 인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할 지경이다. 젊고 팔팔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모두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맡겨진 사명에 부도내지 않으려고, 각자의 위치와 지역에서 애쓰고 수고해온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날에 보상하시리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증을 가진 자들이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당당히 외치는 것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같이랴’(롬8:35). 나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단이라 핍박해도, 목사가 아니라고 제명을 당해도, 세상에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 받기를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주만 바라보며 달려갔다. 세계 74개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했는데, 우리 종들부터 하나님의 종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어보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 말이다. 그리하여 저 김일성 광장은 물론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벅찬 미래를 꿈꾸며 기도해보자.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우리 종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멋진 작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자.”

한은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9:1~23)

누명을 썼는가? 요셉을 생각하고 참아라

며칠 전, 일기장을 뒤적이다 믿음의 어머니에 관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는 주의 종을 극진히 섬김은 물론이고, 성전건축이라면 아낌없이 헌금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 성전건축헌금에 손을 댔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어머니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통에 어머니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진실을 밝히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그 사람이 살겠다고 나를 밝은 건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 사람을 다시 밝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나 살자고 남을 죽이지 말고 요셉처럼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구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교회 집사가 밥을 해주기 위해 사택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교회는 웅성거렸고, 공공연히 목사님의 아이라는 소문까지 돌자 장로들이 그 집사를 불러 "목사님 아이지?" 하고 추궁했는데, 아꼈사, 그 집사가 "네."라고 대답한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내쫓겼지요. 그리고 대구의 앞산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집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장로들이 핏덩이를 목사님에게 던지듯 넘겨줬습니다. '네 자식, 네가 거둬라' 이거지요. 그래도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어린 것을 암죽을 끓여 먹이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부흥사가 모두 회개하라며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이때 밥을 해주던 그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 방성대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시아주버니의 아이'라고 실토한 것입니다.

다급히 교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들은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잘못했으니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허허 웃으시더니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며 지금 계신 목사님이나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저도 괜한 누명, 오히려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 성격 같아서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했겠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맞고소해라' 했지만 안 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찌니라"(잠24:29)는 말씀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명을 썼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요셉을 생각하며 한번 참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 신임을 얻게 되어, 가정제반사를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기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창39:9).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 보디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결국 요셉은 욕에 갇힙니다. 그래도 요셉은 해명 변명 안 했습니다. 분노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잠15:3)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하였고, 실세 총리가 되어 나라를 건지는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윤화가 젊은 시절 시골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어느 집 마당에 머물고 있는데, 마침 주인집 아이가 대청마루에서 진주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리니 그 밑에 있던 거위가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윤화가 봤지요. 아이가 마구 물어대자 주인은 윤화가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결박 지어 아침에 관가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윤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화는 거위에게 가서 구슬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슬이 거위의 배변에서 나왔지요. 이를 본 주인이 사죄하며 "어제는 어째서 말하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그 왈, "어제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 배를 갈라 구슬을 꺼

냈을 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임금 귀에까지 들렸고, 임금은 어린자가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며 그에게 도승지라는 직분을 하사했습니다. 그가 잠시 옥을 참고 변명하지 않았기에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모함을 참아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요셉처럼, 윤화처럼 영광의 보좌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윗도 요셉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며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백성

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이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이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이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이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이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이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으니, 다윗은 만만

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막15:12~15).

여러분,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악행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서 자유케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인데 살인마인 바라바보다 더 죄인 취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해명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사53:7).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고(마28:18),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빌2:10).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인의 소행이요, 선을 선으로 갚은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악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주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 악인을 벌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역대하 24장에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 요아스에게 경계의 말씀을 보내자 요아스는 그를 죽여 버립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여호와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했고, 1년 후, 하나님은 요아스가 전쟁에서 참패하게 하였고, 요아스는 신하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잠20:22).

너 자신부터 마음을 넓히면 못 답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억울해서 가슴에 화가 쌓이면 마음만 축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제 믿음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저처럼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시37:5~9).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몇 년 전 강원도 땅에 6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TV 방송국에서 태백산 계곡을 취재했는데, 계곡에 물이 다 말라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었다.

성경에 보면(왕상17장, 18장)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큰 고통이 오게 되었다. 비교적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으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사막인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며 해결하려 했다. 오직 엘리야 한사람만이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렸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홍해 앞 바다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원망 불평만 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했다. 이때 모세는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켰다(출14장). 여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이성을 점령한 것도 기도로 이룬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맞다. 반대로 기도의 풍성은 모든 것의 풍성함과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 인천교회에 신동금 권사라는 분이 계신다. 이분이 7, 8년 전에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이사하라고 했다. 권사님은 “하나님, 나도 이제 내집이 필요하니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는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집을 사러 왔다. 1,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 부동산 사장이 ‘그 가격의 집은 없다’고 하다가 ‘아! 2,000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했다. 권사님이 ‘1,200만 원 이상은 구할 수 없다’고 말하자 부동산 사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계약하자.’ 해서 집을 사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권사님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장사가 그 집을 사겠다며 ‘얼마에 팔겠냐?’ 해서 권사님이 속으로 ”2,000만 원에 판다고 할까? 5,000만 원에 판다고 할까? 아니야. 이왕에 부르는 거 1억에 판다고 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집 장사가 먼저 ‘1억 4,000만 원에 합시다.’ 해서 1억 4,000만 원에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셨다. 신 권사님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기도의 풍성함이 이런 기적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우리, 기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장영국 목사**

느헤미야 리더십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예수중심교회 서울 청년부에서는 강원도 춘천 자연휴양림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영적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다. 이 워크숍은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세대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통합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의 요소는 외모, 학력 등 보이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요소는 영성, 지성, 인성, 태도, 회복, 재능인데 느헤미야를 통해 청년들은 참된 제자가 되길 바라며 참된 섬김은 무엇인지 배워나갔다.

난세에 영웅이 나듯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지도자 느헤미야. 그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조직가였으며 지성, 글로벌 비전을 겸비한 자였다. 또한 실력과 인품, 영성이 출중한 자로 이스라엘의 변화와 혁신적인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거룩한 영성을 갖춘 리더십, 비전으로 준비된 리더십, 에스라 및 팀원들과 팀워크로 일하는 리더십, 방해꾼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자기희생을 통한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쌓아 올린 영성이 충만한 인물이었다. 그의 성품과 성향, 리더십, 지성, 의지에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 더 리더십을 발휘하였는데 성벽 재건의 방해꾼 산발랏과 도비야, 계شم과 아스돗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신들의 팀원들을 격려하면서 목표에 충실했다.

총회장 목사님이 베풀어주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예수중심교단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불이 붙었듯, 이번 임원 워크숍을 통해 영성에 활활 불이 붙는 청년들을 발견했다. 앞으로도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세대,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 가운데 반드시 나올 것을 확신한다.

송현해 생도



:: 성경에세이 ::

영적 색맹

여보게!

색맹이 무슨 질환인지 알지? 색맹이란 색채를 식별하는 감각이 불완전하여 빛깔을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빛깔로 잘못 보는 상태를 말한대네. 한 마디로 색깔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색맹 중에는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록 색맹이 많다는 것을 아나? 그들이 금할 것은 운전이라네. 신호등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

영적 색맹도 있네. 하나님의 사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지. 신호등을 구별하지 못해서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모르듯, 이때가 하나님이 멈추라는 때인지, 가라는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색맹이야. 문제는 내가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야.

사울이 그랬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지.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 15:20~21). 자기 말이 옳다는 거야. 자기가 받은 신호등이 맞다는 거지. 자기가 영적 색맹인 것을 모르는 게지. 대형사고를 치고도 말이야. 빨간불인지 모르고 달려간 나를 탓해야 하는데 변명에 급급했지. 결국 사고를 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 사고 내면 대가를 치르는 법이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가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네. 어디로 가든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헌신은 곧 주의 뜻대로 100% 온전히 행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마음을 돌이켜 마게도냐로 향했네(행16:6~10). 99%의 순종은 없네. 신호등에는 1%의 여지도 없듯.

여보게!

영적 색맹에서 벗어나야 하네.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것을 얻기를 원하면 기도하면 된다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봉우**

:: 낮은 울타리 ::

중보기도의 힘

새해를 맞이하여 혼자 매일 기도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중보기도 요청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중 응답받은 몇 가지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취업을 앞둔 친구의 기도였습니다. 친구는 꼭 가고 싶었던 일터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미 두 번이나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중보기도 노트 상단에 그 친구를 위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친구는 1월에 다시 지원서를 넣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는 자꾸 떨어지는 것이 창피하여 중보기도 요청을 주저했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에 용기 내어 친구들에게 부탁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준 덕분에 이렇게 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친언니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니의 회사에 언니와 비슷한 연차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썼고, 회사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게 될까 봐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직원의 입사가 언니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니가 승진을 했습니다. 언니가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덕분도 있지만, 경력이 높은 그 직원을 승진시키며 비슷한 연차의 언니까지 심사 대상으로 들어가 승진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빠른 승진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같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혹시 부끄러워 중보기도 요청을 못하고 있다면 나의 동역자들을 신뢰하여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면, 동역자들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해보십시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정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우리 삶의 므비보셋

한 사업가가 300억이라는 거금을 카이스트 대학의 한 교수에게 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사업가는 ‘사업이 부진했을 때 그 대학교수가 찾아와 첨단 기술을 전수해줬고, 덕분에 기업이 살아났다.’고 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교수에게 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해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선진국 유학을 통해 본인을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를 사회에 보답하고자 기업을 도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세상을 빛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과 ‘기억하라!’는 명령이 함께 존재합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

가 없느니라”(사46:9). 결국, 과거의 ‘상처’는 기억하지 말고,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묵상하다 보니 문득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도피와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안정된 뒤, 신하를 통해 요나단의 자녀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삼하9:1).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한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구해준 요나단의 ‘은혜’는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찾은 므비보셋은 낙상사고로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되갚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눈으로도 사울의 혈통인 므비보셋이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를 찾아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성을 떠날 때 생필품을 준비한 것도,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걱정하고 기다린 것도, 그의 몸종이 이간질로 빼앗아 간 밭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다윗의 말에도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니 밭은 종에게 주라고 말할 만큼 다윗 자체를 진실로 사랑하는 므비보셋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는 잊고, 상처를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깊은 은혜를 가슴에 새겼던 다윗의 ‘상처’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잊고 있던 므비보셋을 찾아봅시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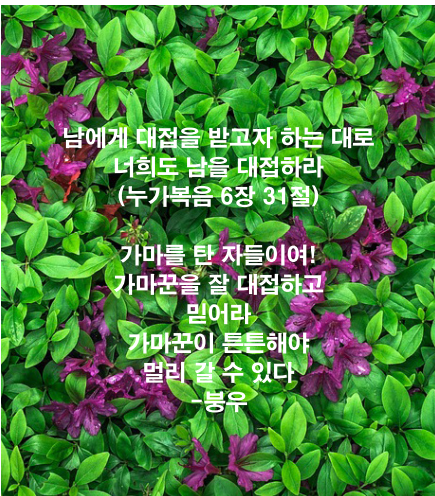
예배 준비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단에 서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세밀한 것까지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다. 올해 첫 주일 3부예배는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는 송구영신예배 영상을 다시 보았다. 송구영신예배 설교화면이 나오자마자 나는 목사님이 실황으로 설교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목사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송구영신예배 때와 똑같은 양복과 넥타이, 행커치프, 신발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복장으로 주일에 예배 인도하셔서 영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해외, 지방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줄 착각할 정도로 화면 전환이 부드러웠을 것이다. ‘준비하라’는 주제를 단골 메뉴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통해 직접 실천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성도들을 배려하는 사려 깊음에 다시 감동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자신감은 준비량과 정비례한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기다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렵고 초조하기만 할 것이다.”

목사님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40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은 준비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달인이겠지만,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일 새벽마다 점검하시는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런 언행 일치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쓰시는 이유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목사님도 이렇게 준비하실진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였는지, 예배 전에 자리에 앉아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예배의 성공을 통해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요4:23).

송명국 집사



Good News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며,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낙심치 않습니

다. 하나님의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받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영혼의 때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피해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지만, 모든 자들의 죽음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 최고의 날이 되겠지만, 믿음이 없

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믿고 내일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야 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내가 매일 기쁘게 ::

힘이 되어주세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나는 네가 크리스천인 줄 몰랐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일도 성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 친구의 말은 지난 삶을 되돌아볼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나는 얼마나 세상과 구분되어 살고 있는가’를 돌이키며 점검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달갑지 않은 이들에게 눈짓과 조롱을 받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삶에서의 순교’로 받아들이며 달게 이겨내곤 한다. 근래 회식 자리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다. 평소엔 누군가 술을 권하면, ‘나

는 크리스천이라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하지만, 그날은 유독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고위 임원이 “OOO 본부장은 장로인데도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마시는데!”, 또 다른 선배는 열근하게 취한 상태로 “나도 집사인데, 내가 딱 전호정 씨 나이 때 술을 시작했어! 주(酒)님도 잘 섬기자고!”라며 술잔을 권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애써 너털웃음을 지으며 사양했지만, 그들의 따가운 눈빛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천 후배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

슬퍼, 번뇌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은 내게 작은 다짐을 하게 하셨다. ‘나는 힘이 되어주겠다. 예수중심교회 후배들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비단, 회식 자리만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탁월하고, 신앙인으로서 구분되며, 동료의 성장에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세상 속에서 믿음 위에 덕을 쌓는 크리스천의 한 예가 되겠다고 말이다. “OO씨 크리스천이라고? 저기 전호정 씨 크리스천인데 썩 괜찮아! 아주 잘해!”라는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 힘이 되도록!

전호정 집사
rockerjhj@naver.com